

진리는 시대상황 따라 변해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



‘한국의 모든 지식’ 김흥식 지음

‘춘향전’을 읽다 보면 한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몽룡과 춘향의 가족 관계는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 있는데 왜 변화도와 관련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을까. 이몽룡의 부친은 온 가족을 데리고 남원 부사로 부임했지만 변화도는 홀로 남원에 부임한 것으로 돼 있다. 생동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호기심 많은 독자라면 당연히 궁금해하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의 모든 지식’의 저자 김흥식은 그 이유를 다산 정약응의 ‘목민심서’에서 찾았다. 책에는 부모와 처 외에는 아들 1명만 허용하되, 미혼 자녀들은 모두 허용하고 사내종 1명 계집종 2명 외에는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도는 가족으로 인해 공무를 그르치는 것을 경계했다고 보여진다. 아무리 그가 책을 밝히는 인간이었다 해도 가족을 이끌고 온 상황이라면 부임 첫날부터 춘향에게 수정을 강요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껏 독자들은 춘향전을 남원의 연애사 내지 성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흥미 위주의 독서를 했다. 가족을 대동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변화도의 의도를 애써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변화도가 이몽룡 부친 이한림에 비해 좀더 공적인 목민관이었는지 모른다.

이렇듯 저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것이 진정한 앞인지를 반문한다. 특히 그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단언하며 심지어 “아는 것이 병이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강조한다. 익히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저자의 기본적 스탠스다.

특히 왜곡된 사실이 참으로 표변되는 세태와 지식의 탈을 쓴 독선이 우리 지식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고 앞을 대한 비판적 접근을 주문한다. 저자는 수많은 지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선별, 종합무진 뒤집어보기와 탈주를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해석과 흥미를 유도한다.

모내기를 둘러싼 정치경제학, 독자적인 달력을 만들어 시간을 장악하려 했던 세종의 의도, 세계 표준시를 놓고 벌였던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 한글 간소화 정책 이면에 숨겨진 이승만의 독재논리, 아홉 번 장원급제를 했던 천재 율곡을 통해 본 ‘인간의 길’ 등 책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적 사실과 그 이면의 배경이 소상하게 나열되어 있다.

흥미있고 재미있는 지식의 사례를 접하다보면 지식은 과거에 박제되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도달한다. 또한 당대의 지식은 끊임없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과 반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한다.

물론 저자 특유의 ‘뒤집어보기 논리’가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세상을 미혹하는 터무니없는 불합리와 무지에 근거한



폐허가 되어버린 화성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화성성역의궤’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새로이 건설된 화성 성곽의 서장대에서 실시한 병사의 조연 모습.

〈사진제공: 국립중앙박물관〉

만용보다는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어떤 관점으로 지식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사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진짜 앞이란, 바른 앞이란 지식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열린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것인지 모른다.

〈서해문집·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디언들의 구비문학과 생생한 삶 들여다보기

‘빛을 보다’

브라이언 스완 지음



“인디언 문학을 인디언의 방식으로” 전달한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문학을 전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미국 루퍼유니언 대학교 브라이언 스완 교수가 엮은 ‘빛을 보다’는 지금까지의 관점을 탈피, 원주민 사이에서 전해내려온 구비문학을 토대로 인디언 문학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 위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인디언 문학을 탈식민주의적 시각과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제국주의 희생자와 자연주의의 삶의 실연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다뤄왔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접근은 결과적으로 인디언 문학의 특질과 세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

이 인디언 문학과 인디언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책은 원주민들의 삶에 밀착한 생생한 언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비문학 전반에 관한 범주를 아울러서 의미다. 노래, 전설, 민담, 신화와 같은 구비문학 본래적 장르뿐 아니라 축원, 연설과 같은 분야까지도 수용,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수록 작품의 채록 경위, 인디언 문화와 연관된 인류학적 측면까지 첨부돼 있어 인디언 문학과 삶을 다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문학과지식사·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과학의 눈으로 그림을, 화가의 눈으로 과학을

‘실험실의 명화’

이소영 지음



예술가는 과학을 싫어하고 과학자는 예술을 싫어한다? 혹은 예술 서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학 서적을 싫어하고 과학 서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 서적을 싫어한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술과 과학은 서로 닿을 수 없는 반대편에 존재하는 분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념에 날카롭게 메스를 들이댄 책이 출간됐다. 학부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현대미술사를 공부한 이소영 씨는 ‘실험실의 명화’에서 “과학의 눈으로 그림을 보고 화가의 눈으로 과학을 만나라”고 주문한다. 저자는 화가로도 널리 명성을 날렸으나 과학자에도 획을 그은 르네상스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부학의 기초를 세운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가 그와 같은 경우이며 반대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은 근대 과학의 기초를 세울 만큼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들 모두 탁월한 미적 감각을 소유했다고 강조한다.

통섭과 융합이 화두로 등장한 시대에 과학과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저자의 예술적, 지적 편력은 자못 흥미롭다. “과학의 눈으로 그림을 보고 화가의 눈으로 과학을 보라.”

이 같은 명제는 음악과 체육, 언어와 수리같은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모요사·1만6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길들이기’라는 주제로 본 건축의 실제

‘길들이는 건축...’

이상현 지음



이상현 명지대 건축대학 건축학부 교수가 쓴 ‘길들이는 건축 길들이진 인간’에서는 건축의 내부에 사람들을 교묘히 길들이려는 정치·사회화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건축의 미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길들이기’와 ‘길들이진’이라는 사회화학적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양반집부터 궁궐과 도성, 현대 도시와 현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간과해온 건축의 실체를 역설한다.

‘건축으로 길들이기’ 편에서는 사

회적 이념에 봉사하는 건축을 다루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건축이 길들이기를 수행하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와 건축적 기법을 들어 설명한다.

‘건축으로 길들이진 인간’ 편에서는 건축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길들이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사회적 이념에 맞서고 건축물을 매개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지를 고찰한다. 〈휴형출판·1만8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위대한 리더도 실수를 저지른다

‘역사를 바꾼...’

빌 포셋 지음



‘역사를 바꾼 100가지 실수’는 실수로 인한 역사적 실패들을 이야기로 담고 있다. 대학 교수이자 볼록레이 게임(RPG) 회사 대표인 저자 빌 포셋은 역사의 상당부분이 위대한 리더들의 철두철미한 계획으로부터 발생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사람들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한 시대의 삶과 노선을 통째로 뒤바꾼 100가지의 결정, 행동, 복잡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통해 흥미진진한 역사의 뒷이야기를 시대적 순서로 나열

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저지른 최악의 결정이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이 인찬 상륙작전의 승리에 더해, 38선을 넘어 진군한 것도 미국 병사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실수였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과거의 악몽을 재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매일경제신문사·2만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북클럽’

윌 슈발브 지음



제목부터 예상치 못했다. ‘엄마와 함께한 북클럽’. 윌 슈발브가 지은 이 책은 지난 2007년 늦가을 책장 안 관정을 받은 엄마와 책을 매개로 나눈 대화집이다.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어머니는 세상과의 작별을 준비한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행이나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저자와 어머니는 책을 읽으며 자신들의 삶을 반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명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북클럽. 책은 엄습해오는 불안감과 압박감을 견뎌내게 해주는 생명의 통로다. 책 속의 인물들과의 교감은 두 사람에게 예측 불

가능한 현실을 살아가게 할 힘을 준다.

저자는 자신의 기억과 메모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종이 쪽지를 토대로 책을 썼다. 어머니와의 대화도 형식과 장소를 불문한다. 병원 대기실과 어머니의 아파트를 오가며 자유롭게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책은 세상의 변화를 견인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서로에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요즘 무슨 책을 읽느냐”는 것. 이들의 질문은 현대를 사는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묻는다. 당신들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21세기북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남아 버렸다=이 책은 ‘어떤 식으로 파국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전하고 있다. 실질적인 정보와는 차별화되는 어떤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책의 제목으로 ‘살아남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생존을 확보한 후에 더욱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공리·1만8000원〉

▲붉은 도마=2003년 참비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고희 출신의 김광선 시인이 9년 만에 시집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000년 시집 ‘겨울 삽화’로 노동자의 고단한 삶에 잠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 서정적으로 시화하는 전통적인 노동시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집에서도 이미지와 노동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표현했다. 가시 없는 진술한 노동의 인생을 담았다. 〈실천문학사·8000원〉

▲지식기반 문화대국 조선=일제에 의해 가장 심하게 평가 절하된 조선의 역사를 문화사적으로 재정립했다. 사회와 학계에 만연한 식민사관을 ‘문화사관’으로 견어내고 도덕과 자존, 평화를 지향하는 문치주의 전통을 찾아내어 조선시대가 지식에 기반을 둔 문화국가임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역사학자인 저자 정옥자 교수는 미래에 또 하나의 문화대국을 이룩해야 한다는 꿈을 담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돌베개·1만3000원〉



▲그래도 행복해지기=박완서, 신달자, 황수관, 허영자, 김별아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행복 멘토 22인이 ‘행복’ 예찬론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래도 행복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연금술 같은 지혜를 들려주며, 자신만의 감동 드라마를 만들고 응원한다. 삶을 긍정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만들어 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 보자. 〈복음선·1만3000원〉

▲그림으로 보는 과학의 숨은 역사=과학과 관련된 또는 과학에서 사용해진 회화, 조각, 그림 등 이미지 자료들을 매개로 과학의 역사를 새롭게 독해한다. 주요 인물과 사건을 연대기로 서술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이야기로 구성하는 과학사인 동시에 역사와 문화와 예술의 맥락으로 읽는 인문적·융합적 과학사다. 〈책세상·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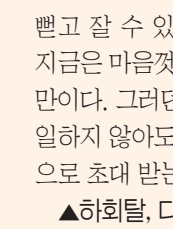
▲조금은 빠뜨린 세계사=유렵권=단지관광청에 ‘파도의 유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5년간 연재된 내용을 보완하고 정리했다. ‘유럽의 역사는 시간순으로 발전하고 진화했는가?’, ‘영국의 명예혁명에 정말 명예로웠는가?’ 등 우리의 역사적 상식에 끊임 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전형적인 역사서와는 거리가 멀지만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역사서라는 느낌이 덜 정도로 내용은 목차하다. 〈역사의아침·1만8000원〉



▲전쟁과 평화=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만화로 다시 태어났다. 소설의 큰 줄기를 따라가며 원작 그대로의 감동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만화로 읽는 불멸의 고전’ 시리즈 중 하나로 원작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고전에 대한 흥미를 가져다주고 있다. 〈문학동네·1만3500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선사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생활의 풍경들=“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단순한 질문 속에 담긴 ‘어떻게’를 가장 상세하고 규모 있게 그려냈다. 석기시대에서 오늘날 첨단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의 풍경을 들여다보며 인류가 살아온 자취를 이해하고 긴 세월 모양새를 달리하며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시공주니어·1만4000원〉

▲거꾸로 탐험가 아리에 삼촌=아리에 삼촌이 무마니아 황야를 여행하며 겪은 일을 다룬 이야기책이다. 지난 2010년 이스라엘 교육부



우수도서상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에서 14만부 이상 팔렸다. 아리에 삼촌의 상상력 가득 한 모험담 속에 이스라엘 독자 교육법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재미와 지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코리히어스·1만1000원〉

▲새가 된 청소부=청소부 알과 그의 말하는 개 에디가 열심히 일하지만 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 예전에는 그저 발 뺏고 잘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었으면 됐지만 지금은 마음껏 뛰놀 넓은 마당 하나 없는 게 불만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커다란 새로부터 일하지 않아도 실컷 먹고 놀 수 있는 신비한 섬으로 초대 받는다. 〈뜨인돌어린이·1만1000원〉

▲하회탈, 다시 살아나다=글과 그림을 통해 지배 계층의 위선을 비판하고 평민들의 억눌린 감정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 문화 중 하나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현실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세상살이를 소개한다. 〈노래돼지·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